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

2017. 11.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집행기준.....	2
III. 감사결과.....	5
1.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및 부당집행[주의, 통보(인사자료)]...	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2017. 9. 26.과 같은 해 11. 3. 각각 감사요청¹⁾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 이사장 및 이사 10명(이하 “이사진”이라 한다) 등 총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등 KBS의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및 중점

이번 감사는 KBS 이사진 총 11명이 임기 중에 집행한 업무추진비²⁾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업무추진비 이외에 이사진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비 및 회의수당은 감사원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³⁾에 따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및 방법

이번 감사는 2017. 10. 17.부터 2017. 11. 9.까지(1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KBS 이사진(11명)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용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1) 2017. 9. 26. ○○이 KBS 이사진 총 11명 중 8명(이사장 및 이사 7명), 같은 해 11. 3. ▲▲대표(A)가 나머지 이사 3명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관련하여 감사요청하였음

2) 이사장은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이사 10명은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3)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조사는 감사요청사항 내용에 국한하여야 함

또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조사 대상 이사진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각각 2차례 이상 소명을 받아 합리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K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및 집행 관리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7. 11. 24.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집행기준

1. 업무추진비(이사진) 집행 현황

KBS 이사장 및 이사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각각 연간 28,800천 원(월 2,400천 원), 또는 12,000천 원(월 1,000천 원)이고, 제10기 이사진 11명은 2015년 9월(이사장은 보궐이사로 임명된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계 277,656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연도별 업무추진비(이사진) 연간 한도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9월 ~ 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월 ~ 8월	계
연간 한도액	이사장(1인)	9,600	28,800	28,800	19,200	86,400
	이사(10인)	-	120,000	120,000	80,000	320,000
집행액		7,235	64,546	129,677	76,198	277,656

자료: KBS 제출자료

2. 업무추진비 집행 · 관리 기준

가. KBS 회계규정 등

KBS 「회계규정」 제16조 등에 모든 거래는 ‘전표’로 처리하여야 하고 ‘전표’의 내용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기타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내역’란에 집행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KBS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시 유의사항」⁴⁾

KBS는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할 때 공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책임하에 직접 집행하며 타인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인 목적의 사용은 개인이 사용대금을 부담하더라도 공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고 내·외부 감사 시 관련 기관(부서)에 대한 소명요구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며, 건강보조식품, 상품권 및 선물 등 사적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구매를 제한하되 업무상 불가피하게 구매할 경우 내부품의문서, 구매 및 배포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어 사적 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심야, 휴무일, 공휴일 등), 장소, 업소에서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다. ‘법인카드 사용제한’ 설명자료⁵⁾

4) KBS는 2004. 10. 5. 전 부서에 “법인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공지”를 하여 교통비, 상품권 및 선물구입비, 단란주점 경비 등 사적 용도 집행을 제한하고 법인카드 사용분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공사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므로 법인카드의 사적인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이후 KBS 지역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5. 2. 3. 공사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또다시 전 부서에 재공지

5) KBS는 2015. 9. 11.부터 같은 해 9. 12.(2일간)까지 새로 임명된 제10기 이사진 전원에게 실시한 이사회

업무추진비(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 사치성 유흥점, 백화점, 철도·버스 등 교통비, 선물 구입 등과 기타 사적용도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도서구매는 업무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법인카드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다.⁶⁾

업무보고 시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카드 사용 제한에 대하여 설명
6) [표]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기준 종합

구분	집행 예	집행 시 조건
사용금지	사적사용(법인카드 타인대여 금지 등)	-
	개인 교통비, 단란주점 등	-
사용제한	상품권 및 선물류	불가피한 경우로서 내부 품의문서, 구매 및 배포 내역서 첨부
	공휴일 등 사적사용 의심 시간, 장소, 업소에서 사용	직무관련성에 대해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
	도서*	업무관련 경비 집행 취지에 맞게 사용

* 이사진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기본소양 함양 등을 위한 일반도서 구입의 경우 대외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지급 취지에 맞지 않아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나 KBS 이사회사무국이 업무관련이 있는 경우 구매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일반도서 구입은 부당집행 유형에서는 제외하되,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고 사적용도가 명확한 경우 감사결과에 포함

Ⅲ. 감사결과

1.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및 부당집행

소 관 기 관 한국방송공사

조 치 기 관 ① 한국방송공사 ②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는 KBS 이사장 및 이사⁷⁾(총 11명, 이하 “이사진”이라 한다)에게 대외협력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이사회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KBS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KBS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사장의 경우 월 2,400천 원(연 28,800천 원), 이사의 경우 월 1,000천 원(연 12,000천 원)을 한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진은 [표 1]과 같이 2014. 9. 1.(이사장의 경우) 또는 2015. 9. 1.(이사의 경우)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277,656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1] 이사진 임기중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합계	B	C	D	E	F	G	H	I	J	K	L
277,656	75,436	25,405	23,981	23,188	22,733	20,571	20,478	19,352	18,461	14,174	13,877

자료: KBS 제출자료

7) 「방송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KBS 이사진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3년이며,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13조 등에 따라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방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자금계획의 수립, 경영평가, 사장·감사의 임명제정 등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KBS는 「이사회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사진에게 ‘업무 추진비’ 외에도 ‘조사연구비’⁸⁾와 ‘회의수당’(회당 300천 원) 등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KBS 「회계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전표결재서 등을 전표로 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 그 범위는 사장이 정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KBS 「회계처리지침」 3.에 따르면 ‘전표’의 내용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기타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KBS 「전표작성요령」 3. ⑪에 따르면 ‘내역’란에 집행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KBS(재무부)가 2015. 2. 3. 「법인세법」⁹⁾ 등에 따른 신용카드 의무 사용과 적격 증빙 수취를 통한 공사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전 부서에 시행한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¹⁰⁾ 3. ‘사용기준’ 및 7. ‘기타 유의사항’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공사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8)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비로 2017년 현재 이사장은 월 4,020천 원(연 48,240천 원), 이사는 1인당 월 2,520천 원(연 30,240천 원)을 정액 지급(2016년 1월부터 이사장은 월 3,820천 원, 이사는 1인당 월 2,320천 원에서 각각 200천 원씩 인상)

9)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KBS 재무부가 2004. 10. 5. 내부 부서를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을 공지한 바 있고 2014년 KBS 지역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재공지한 것임

사적인 목적의 사용을 제한하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어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심야, 휴무일 등), 장소, 업소에서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본인 책임하에 직접 집행하며 타인 대여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적사용 가능성이 있는 선물 등 물품의 구매를 제한하되,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적사용 가능성이 있는 선물 등을 구매할 경우 전표결재서에 관련 증빙 자료(내부 품의문서, 구매 및 배포내역서 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6. ‘사용대금 정산 및 결제’에 따르면 법인카드 전표결재서 제출기한(거래 승인일을 기준으로 당월 전표 마감일까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재무부로 제출(부가가치세 공제 항목)하거나 해당 부서에 5년간 보관(부가세 불공제 항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KBS 이사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2015. 9. 11.부터 9. 12.(2일간)까지 새로 임명된 제10기 이사진에게 실시한 “이사회 업무보고”¹¹⁾에서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각 이사진에게 법인카드(업무추진비)로 사치성 유흥점(단란주점 등) 사용, 철도 등 교통비 사용, 선물구입, 기타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도서구매는 업무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법인카드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이사회 시까지, 정기이사회 후 월 말일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은 다음 정기이사회 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11) B 이사장의 경우 2014년 9월 제9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치성 유흥주점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선물구입 및 사적용도 사용 제한 등 2015년 9월과 유사한 법인카드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안내받음

또한 KBS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이사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내역(사용 일시, 목적, 금액, 방법, 장소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KBS는 이사장 및 이사들(이하 “이사진”이라 한다)이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¹²⁾ 등을 재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반납조치¹³⁾ 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휴무일, 공휴일 등), 업소(단란주점 등), 장소(자택이나 개인 사무실 인근 등)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집행목적, 집행 상대방 등을 전표 등에 기재하고,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배포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사진으로부터 매출전표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진은 업무추진비를 KBS의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KBS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KBS(이사회사무국)는 제10기 이사진에게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서도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확

12) 2016년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6,333억 원으로 KBS 수입 총액 1조 5,335억 원의 41% 차지

13) 사무국은 2015. 10. 12.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 등에서 사용 제한으로 규정된 교통비(택시비 210,500원)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E 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하였음

인할 수 있는 집행 목적과 상대방 등 집행내역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전표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요청¹⁴⁾된 B 등 이사진 11명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나 선물 구매 및 배포내역서 등이 제대로 첨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KBS는 [표 2]와 같이 2015. 9. 1.(B 이사장의 경우 KBS 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 B 등 11명의 KBS 이사진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1,898건(257,489천 원) 중 87%에 해당하는 1,653건(208,371천 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미제출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계	매출전표 원본 미제출	매출전표 원본 제출
건수	1,898	1,653	245
금액	257,489	208,371	49,118

주: 1. 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2014. 9. 1.~2017. 8. 31., 이사 10명의 경우 2015. 9. 1. ~ 2017. 8. 31.

2. 작성대상은 KBS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매출전표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인카드 결제금액 3만 원 초과 집행건임
자료: KBS 제출자료

그리고 사무국은 B 이사장과 E 이사, I 이사 등 3명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 50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계 14,935천 원을 선물구입비로 집행하였는데도 구매 및 배포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선물구입이 직무상 불가피하게 구매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배포내역서 등을 증빙자료에 첨부하도록 하지 않는 등 회계규정 등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14) 2017. 9. 26. ○○이, 같은 해 11. 3. ▲▲대표(A)가 KBS 이사진 11명 중 각각 8명, 3명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요청하였음

특히,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이나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 등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대외협력활동 지원이라는 업무추진비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3] 및 [별표 1] “제10기 KBS 이사진(11명)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명세”와 같이 이사진이 재직 기간 동안 계 11,754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 집행이 금지되는 용도에 집행하는가 하면, 같은 기간 동안 계 74,193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집행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한 전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각 이사진도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 목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 3] 이사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계	동호회 회식비, ◇◇카페 음료 구입비	개인물품 구입·수리비 (전자기기, 음반 등)	개인적인 식사비· 음료 구입비	기타	계	공연·영화 관람권 등 구입비	자택·직장 인근 식사비	주말·휴일 식사비	선물 구입비
집행 건수	657	56	37	511	52	656	25	446	135	50
금액	11,754	1,604	3,826	3,514	2,810	74,193	3,030	46,346	9,883	14,934

주: ‘자택 및 직장 인근’의 기준은 서울 시내의 경우 1km 이내, 서울시 외 지역의 경우 5km 이내 적용

자료: KBS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이사진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기본소양 함양 등을 위해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대외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진에게 조사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각 이

사진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경우 조사연구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무국은 2015. 9. 12. 이사진에게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요령 등을 설명하면서 도서구매는 업무관련경비 집행이라는 법인카드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로 인해 I 이사 등 이사진 8명¹⁵⁾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포함, 소설류, 취미, 건강, 어학 등 제반 분야를 망라하여 계 548권¹⁶⁾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계 12,385천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이 KBS가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회계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게 이루어져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KBS는 앞으로 KBS 이사로서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KBS이사회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새로 제정하여 그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며 선물 배포처도 작성·관리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15) I, B, D, J, E, G, K, L

16) 위 이사진 8명이 구입한 도서의 경우 업무추진비 목적 외의 부당집행으로 볼 수 있으나 사무국에서 잘못 설명하는 등 부당집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사진 개인의 부당집행 내용에서는 제외(단,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고 사적용도 사용이 명백한 도서는 포함)

한편, KBS는 ①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규정」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이 별도로 없다는 등을 이유로 KBS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규정」,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이사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② KBS 이사회는 KBS의 직제상 독립기구로서 KBS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이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가진 데 비하여 사무국은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무보조 조직에 불과한 바 사무국이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이사회에 대한 월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③ 각 이사진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 용도와 관련하여 이사의 업무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직원들과 달리 주말·공휴일 집행, 도서구매, 개인식사비 사용 등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①’ 및 ‘②’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KBS 이사회의 회계는 KBS 회계와 별도로 분리·독립된 것이 아니고 KBS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회계규정」 등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사무국이 각 이사진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자료로 배포하고 설명한 점, 실제로 사무국은 2015. 9. 11. 이사진에게 배포한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

료”¹⁷⁾에 사용제한으로 명기된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한 E 이사에게 해당 금액(반납액 210,500원)을 반납하도록 조치(2015. 10. 12.)한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KBS 「회계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사무국이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를 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위 ‘①’ 및 ‘②’의 주장은 정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③’과 관련하여, KBS 이사의 업무범위가 일반 직원들보다 폭넓어 각 계 각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 오히려 사적사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회계규정」 등에 따라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관리하여 집행목적, 집행 상대방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KBS가 제시한 각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항목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각 이사진의 의견과 유사하므로 아래 ‘4.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의 “관련자 주장 및 판단”에서 함께 검토한다.

4.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¹⁸⁾

B는 2014. 9. 1.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제9기 및 제10기 KBS 이사장의 직위에서, I, D, E, C, H, F, K, J, L, G는 각각 2015. 9. 1.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제10기 KBS 이사의 직위에서 각각 KBS가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7) 사무국은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를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에 참고하여 작성

18) C 이사의 경우 [표4]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2017. 10. 17. KBS 이사직에서 퇴직하여 통보(인사자료)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진 전원의 부당집행 내용에는 실시하되, 개별비위 내용은 미설시

KBS 이사진은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¹⁹⁾의 구성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¹⁹⁾로써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KBS 업무추진비 예산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수신료 등이 재원인 KBS 자금으로 그 대금이 결제되므로 KBS의 회계관계 규정과 사무국으로부터 설명²⁰⁾받은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KBS 이사진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인 용도²¹⁾나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휴무일 등), 장소, 업소에서의 사용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적사용으로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사적사용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한편, B 등 11명의 이사진은 2015. 9. 11.부터 9. 12. 사이에 실시된 “이사회 업무보고”에서 사무국으로부터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 등²²⁾을 들었기 때문에 공사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19) 「민법」 제6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10. 7. 29. 선고 2008다7895)에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이사는 소속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되어 있음

20) 사무국이 2015. 9. 12. 이사진에게 “이사회 업무보고” 시 “KBS의 “법인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법인카드 사용제한 등)”를 작성·설명한 것임

21) 법원은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대법원 2010.6.24. 선고 2008도6755 등) 또는 ‘업무상 배임’(대법원 2014.2.21. 선고2011도8870 등)으로 판결

22) 2015. 9. 11. ~ 9. 12. 실시된 이사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사진 11명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를 받음. 또한, B 이사장의 경우 2014년 9월 제9기 이사장 취임한 이후 사치성 유흥주점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선물구입 및 사적용도 사용 제한 등 2015년 9월과 유사한 법인카드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안내받음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2017. 10. 17.~11. 9.) 동안 각 이사진별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이사진 11명은 위 재직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동호회 회식비나 ◇◇카페에서 음료비로 집행하는가 하면, 가요 음반 구입이나 단란주점 경비로 집행하는 등 계 11,754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 사용이 금지되는 용도에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선물을 구입하거나 주말 또는 자택·직장 인근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계 74,193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용도에서 빈번하게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이사진별로 각각 2차례 이상의 소명요구(서면 또는 대면조사)를 하였으나 집행 상대방(배포처) 또는 사용목적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표4] 이사진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계	I	D	E	C ^{주)}	H	F	K	B	J	L	G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11,754	4,488 (휴대전화기 구매 등)	3,273 (◇◇카페 이용 등)	1,779 (음반구매 등)	1,642 (단란주점 이용)	234 (◆◆동호 회 회식 등)	226 (단란주점 이용 등)	50 (개인 식사비 등)	31 (교통비 등)	31 (개인 식사비 등)	-	-
사적사용 의심용도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74,193	4,867 (직장인근 식사비 등)	13,818 (자택 인근 식사비 등)	1,947 (주말공휴일 식사비 등)	6,737 (자택인근 식사비 등)	16,619 (직장인근 식사비 등)	38 (직장 인근 식사비 등)	527 (공연 관 람권 등)	28,218 (배포처불명 선물비 등)	1,184 (자택 인근 식사비 등)	166 (직장인근 식사비)	72 (직장인근 식사비 등)

주: C 이사는 2017. 10. 17. 퇴직

자료: KBS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B 등 11명의 이사진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로 인해 KBS 내·외부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이 제기²³⁾되는데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KBS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사진별로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I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계 19,352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별표 2] “I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333회에 걸쳐 계 4,488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68회에 걸쳐 계 4,867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5년 9월 초(날짜 모름) 사무국으로부터 KBS 자산으로 등록된 노트북을 지급받고서도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015. 12. 28. ㄱ과 주변기기 등 3개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7회에 걸쳐 10개 물품의 구입비 계 806천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임의 집행하였고, 2017년 11월 현재까지 사무국에 물품 구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KBS는 「법인 휴대전화 운용지침」에 따라 이사진 요청 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말기 수리비용이나 분실 시 위약금, 새 단말기 구입비용

23) 2017. 9. 28. ▽▽, 같은 해 9. 29. △△ 등 언론과 <<동호회원 등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을 제기하였고, ○○도 의혹 제기와 함께 D 이사를 고발하는 등 다수의 의혹 제기

지원은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년 9월 KBS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ㄴ)를 지급받고도 2016. 5. 9.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ㄴ)를 구입²⁴⁾하면서 단말기대금 719천 원, 약정위약금 134천여 원, USIM카드 구입비용 8천여 원 등 계 862천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2016. 7. 18.과 2017. 8. 30. 2회에 걸쳐 위 ‘ㄴ’ 기기의 액정 파손 수리비용으로 각각 199천 원씩 계 398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사람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 인근의 ◆◆카페 등과 본인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카페 등에서 318회에 걸쳐 계 2,320천여 원(1회 평균 7,313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²⁵⁾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위 재직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본인 직장(사무실, ◎◎) 인근²⁶⁾에서 식사비로 계 3,575천여 원을 집행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식사비로 12회에 걸쳐 계 1,278천여 원을 집행하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사용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²⁷⁾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²⁸⁾

24) 위 사람은 2016년 5월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여 새로 구입한 후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자택에서 찾아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25) 사용금액이 식·음료 1인분 또는 주말·공휴일, 자택·직장 인근에서 사용한 1만 원 미만인 식사나 5천 원 미만인 음료인 경우이고 자택·직장 인근에서 또는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단, ‘자택 인근 식사비’, ‘직장 인근 식사비’ 및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6) 서울특별시 □구 ○로

27)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다른 이사진도 동일한 기준 적용)

28)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계 100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직무와 무관한 도서 3권²⁹⁾(청소년용 도서 등)의 구입비로 집행한 데 대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① “휴대폰 추가 구입”과 관련하여, KBS에서 지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업무용이므로 분실·파손 시 당연히 KBS에서 비용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따로 요구하기보다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충당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잘못된 것이라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BS는 이사진은 물론 임직원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단말기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실하였다는 휴대전화를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재구입 비용은 용도와 관계없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② “그와 그 주변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이메일 확인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KBS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임기 종료 시 잔존가액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며 문제가 된다면 개인 비용³⁰⁾으로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BS에서 노트북 등을 지원하였는데도 자신이 임의로 구입한 것이고, 2017년 11월 현재까지 사무국 등에 구매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③ “개인 식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동료 이사와 다른 사람(누구인지 기억

29) 2016. 7. 9. ◀◀문고에서 “ㄱ” 구입 등 3회에 걸쳐 구입

30) KBS 자산관리부서(총무부)는 이미 지급한 ■■사의 ‘ㄴ’의 내용연수(4년) 경과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아니면 단순 기종 변경 지급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

못함)으로부터 “개인 식사비 집행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개인 식사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의 집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서는 관련 질문을 받거나 개인 식사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협력을 위해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식사비로 집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D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D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계 23,981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별표3] ‘D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254회에 걸쳐 계 3,273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69회에 걸쳐 계 13,818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7. 4. 9.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ㅅ행사에 참석 후 ◁◁동호인 회식비 304천 원을 결제(업소명: ♪♪, 동호회 회원이 대리결제)하는 등 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동호인과의 회식비 계 878천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15. 9. 7. ◇◇카페(업소명: ♪♪)에서 음료비 7천 원을 결제하는 등 48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카페 이용 시 비용 계 492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적인 해외여행 과정에서 식사·음료비용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2016. 10. 2.

등 8회, 160천여 원)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사람은 재직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로 2017. 8. 30. 김밥³¹⁾에서 2,500원을 결제하는 등 152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³¹⁾로 계 940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2015. 9. 14. 배달음식점 ^{☎☎}피자(경기도 ●시 ▲구 소재)에서 20천 원을 결제하는 등 39회에 걸쳐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자택인근 배달음식점에서 배달음식 주문비용 계 766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식사비로 178회에 걸쳐 계 7,364천여 원을 집행(이 중 82회, 3,576천여 원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집행)하고, 자신의 직장³²⁾ 인근에서 식사비로 4회에 걸쳐 계 174천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식사비로 63회에 걸쳐 계 3,262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16. 3. 30.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하는 등 24회에 걸쳐 공연·영화 관람권 구입비용³³⁾ 계 3,016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빈번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

34)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³⁵⁾

31) 자택·직장,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단, ‘자택 인근 식사비’, ‘직장 인근 식사비’ 및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32) 서울특별시 ●구 ▲로

33) 업무추진비는 KBS와의 업무관련성을 전제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D는 음악평론가로 KBS와 법인격이 다른 재단법인 J J에 조연 등을 하기 위해 공연·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무국에서 위 사람에게 공연 등 관람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 외 사용 사례에서 제외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미소명으로 분류하여 지적함

34)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35)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별표4] “관련자(D) 주장 및 판단”과 같이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동호인들과 ◁▷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카페에서 시사잡지를 읽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KBS 이사의 직무는 포괄적이어서 위와 같은 동호회 회식비, ◇◇카페 이용요금, 사적 해외여행 중 식사비, 개인적인 식사비 지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이나 ◇◇카페 이용, 사적 해외여행 중 식사, 개인적인 식사 등은 그 행위의 본질이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설령 사적인 활동 중 일부 방송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거나 시사잡지를 읽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사람의 법인카드를 대리 결제한 ◁▷동호인은 ◁▷동호회 활동 중 KBS 방송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오히려 위 사람의 법인카드 사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제제기³⁶⁾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식사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막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시 △구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일정 관련 메모를 하지 않고 상대방 개인신상 정보 보호차원이라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에 있는 본인의 자택 또는 서울시 ㉠구에 있는 직장 인근이나 주말에 2백회 이상 직무관련자를 만나거나 직무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위 사람도 집행목적이나 상대방 등 직무관련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E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E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계 23,188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별표 5] “E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48회에 걸쳐 계 1,779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39회에 걸쳐 계 1,947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서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6. 10. 24. ㉡에서 ‘ㄷ 병잉크’를 업무추진비(6천여 원)로 구입하는 등 위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계 219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사람³⁷⁾은 업무추진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음반을 구입할 수 있다고 임의판단하고 2016. 11. 2. ㉡에서 ‘ㄷ’ 등 음반 구입비 95천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계 1,396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음반구입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36) <㉡동호회 회원인 M이 <㉡동호회 활동 후 법인카드를 대리 결제한 사실을 ㉠에 제보

또한, 위 사람은 2017. 5. 6. ■■(서울시 ■구)에서 1인분 식사비 10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계 163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³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식사비로 20회에 걸쳐 계 1,212천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19회에 걸쳐 선물(빵) 구입비 계 734천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³⁹⁾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⁴⁰⁾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업무추진비를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는 점과 위 감사결과 중 개인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한 계 219천여 원에 대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① “음반구입”과 관련하여, KBS 이사로서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고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람 스스로 음반구입 당시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하였다고 인정한 점, 음반 구입이 어떤 식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소명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

38) 자택·직장,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단, ‘자택 인근 식사비’, ‘직장 인근 식사비’ 및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39)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40)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고 기록이 없다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들이기 어렵다.

② “개인 식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개인 식사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카드를 결제하였다고 하나, 사무국에서 업무관련 경비 집행 취지에 맞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KBS 이사로서의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③ “선물용 빵 구매”와 관련하여, 빵과 같은 저렴한 선물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국에서 선물구입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선물 구입에 집행하는 일을 지양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구매한 경우 선물 배포처 등을 구비하여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주말 식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KBS 이사의 활동을 주중으로 국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 상규상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데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행용도 등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H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H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20,478천 원을 집행하면서 [별표 6] “H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2회에

결쳐 234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56회에 걸쳐 계 16,619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서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7. 1. 7. 토요일에 ㉸㉸(경기도 ●시)에서 개인적인 ◆◆모임 식사비로 9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같은 해 5. 9. 공휴일인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서울시 ▲구)에서 지인들과 대선개표방송을 시청하며 식사비로 14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계 234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직장⁴¹⁾ 인근에서 53회에 걸쳐 계 16,061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집행하였고, 주말 또는 공휴일에 2회에 걸쳐 135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⁴²⁾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⁴³⁾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41) 서울특별시 ▲구 ▼로

42)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43)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위 사람은 위 ◆◆모임 식사비 등으로 업무추진비 234천 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식사자리가 KBS 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집행상대방 및 집행목적 등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입증할 증빙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실제로 개인적인 ◆◆모임 등 사적용도로 KBS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고,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사용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갖추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F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F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22,733천 원을 집행하면서 [별표 7] “F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3회에 걸쳐 계 226천 원을 사적용도나 단란주점 등 집행 제한 업소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3회에 걸쳐 계 38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6. 7. 31. 및 2017. 2. 26.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단란주점인 ○○(경기도 ■시)과 ■■■ 노래방(서울시 ■구)에서 KBS 전·현직 직원으로부터 KBS 내 의견수렴 등을 한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계 218천 원을 집

행하였다.

또한 2017. 7. 4. 저녁에 KBS 이사회 준비 등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 인근 ♣♣ (서울시 ㉠구)에서 개인적인 식사비로 8천 원을 집행하였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직장⁴⁴⁾ 인근(직장에서 1km 이내)에서 3회에 걸쳐 계 38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⁴⁵⁾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⁴⁶⁾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위 단란주점 및 노래방에서 KBS 직원과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클린카드인 법인카드 결제가 될 경우 제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진들에게 제공된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에 단란주점 및 노래방은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 목적없이 막연히 “KBS의 건 수렴”을 위해 집행했다는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사람은 KBS 이사회 준비를 위해 개인식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정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하나 대외협력을 위해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식사비로 집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44) 서울특별시 ㉠구 ㉡로

45)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46)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 (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어렵다.

그리고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직장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집행 상대방이나 집행 목적 등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K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K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14,174천 원을 집행하면서 [별표 8] “K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10회에 걸쳐 계 50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8회에 걸쳐 계 527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용도 등에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6. 2. 26. ITX 표역 ♡♡몰 내 ☆☆에서 4,500 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로 10회에 걸쳐 계 50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2016. 8. 20. 토요일 ☉☉에서 160천 원을 결제하는 등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식사비로 7회에 걸쳐 계 512천여 원을 집행하였고, 2016. 9. 30. ‘충전사회’ 관람권 2장을 구입하였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

나 집행목적과 상대방⁴⁷⁾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⁴⁸⁾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개인 식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석 후 ITX를 이용하여 귀가하기 전 교역에서 KBS 관계자를 면담하면서 장소 사용을 위해 1개 메뉴만 주문한 것이고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구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개 메뉴 금액만 결제된 내역 중 10회의 결제내역은 이사회일정과도 무관하며, 집행 상대방을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전시회 관람권 구입”에 대해 문화생활이 KBS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방송관계자와 함께 관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께 관람한 상대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BS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생활 전반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나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B의 경우

47)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48)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1) 부당집행 내용

B는 KBS 이사장의 직위에서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75,436천 원을 집행하면서 [별표 9] “B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2회에 걸쳐 계 31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161회에 걸쳐 계 28,218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4. 9. 24. 자택⁴⁹⁾ 인근(도보로 620m 이내)에 있는 ♠♠마트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8,3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2015. 11. 11. KBS 업무와 관련 없이 KTX 승차권(2015. 11. 16. ㄱ지 구간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22,4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계 30,7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위 사람은 2017. 1. 20. ♥♥백화점에서 설 명절 선물 31개(조미료 및 소스류, 계 1,519천 원)를 대외협력비⁵⁰⁾ 예산으로 구매하기 위해 배포내역서(KBS 전·현직 경영진 등)가 첨부된 내부 품의문서 등을 결재하고서도 같은 해 1. 26.에는 KBS 직함이 없는 인사에게 선물한다는 사유로 같은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로 선물 27개(조미료 및 소스류, 개당 49천 원)를 계 1,323천 원에 구매한 후 내부품의문서 및 배포내역서 없이 배포하는 등 위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계 14,185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선물 또는 기념품⁵¹⁾ 구입에 집행하면서 선물배포처 등 직무관련성을

49) 서울특별시 □구 □로

50) 사무국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 협력 등을 위해 집행하는 부서운영경비임

51) 표고버섯 세트 등 식품이나 도서(ㄱ지 등), 액자 또는 보석함, CD 등이 있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자택 인근(도보로 470m 이내)에 있는 ☼☼ 등에서 식사비로 113회에 걸쳐 계 11,955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식사비로 18회에 걸쳐 2,076천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⁵²⁾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⁵³⁾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KTX 승차권 구매 등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계 30,700원에 대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① “선물 또는 기념품 등 구입”과 관련하여, 방송 관련 직함이 없는 사람 등이 조언을 해주거나 KBS에 도움을 주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선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대외협력비로 방송 관련 인사 등에게 선물할 때에는 배포내역서가 첨부된 내부품의를 결재하고도 업무추진비로 선물 등을 구입할 때에는 배포내역서 등도 없이 막연히 직무관련자에게 주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의견으로

52)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53)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식사의 경우 상대방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및 KBS의 업무상 비밀이 침해되고, 선물의 경우 기억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또한 “자택 인근 식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 사람은 자신이 고령이고 노모를 자택에서 부양하고 있어 움직이는 동선을 줄이고자 주말이나 주중 구분 없이 자택 인근에 약속 장소를 자주 잡았다고 주장하나 집행 상대방이나 목적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 J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J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18,461천 원을 집행하면서 [별표 10] “J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2회에 걸쳐 31천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18회에 걸쳐 계 1,184천 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서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사람은 2016. 10. 5. KBS 이사회 일정 이후 자신의 직장인 ㉠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에서 20,40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식사비로 2회에 걸쳐 계 31,3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6. 2. 4. 자택⁵⁴⁾ 인근(자택에서 1km 이내)에 있는 ㉢에서 80,000원을 결제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자택 또는 직장⁵⁵⁾ 인근이나 주말에 18회에

54) 서울특별시 ㉠구 ㉡로

55) 서울특별시 ㉢구 ㉣로

걸쳐 계 1,183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⁵⁶⁾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⁵⁷⁾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개인적인 식사비 등에 업무추진비 31,300원을 집행한 데 대해 1인 식사라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었다고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자택 또는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식사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에 대해 KBS 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나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L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L은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업무추진비 계 13,877천 원을 집행하면서 [별표 11] “L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2016. 4.

56)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57)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14. 자신의 직장⁵⁸⁾ 인근인 b b에서 58천 원을 집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직장 인근에서 식사비로 6회에 걸쳐 계 166천 원을 집행하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장소 등에서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 목적과 상대방⁵⁹⁾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⁶⁰⁾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위 식사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지인과 만나 KBS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직장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집행 상대방이나 집행 목적 등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 G의 경우

(1) 부당집행 내용

G는 KBS 이사의 직위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계 20,571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별표 12] “G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2015. 12. 22. 자신의 직장인 ★★ 인근 ▲▲에서 식사비 12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직장 인근 또는 주말에 식사비로 4회에 걸쳐 계 72천 원을 집행

58) 서울시 □구 ○로

59)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60)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집행목적과 상대방⁶¹⁾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⁶²⁾

(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은 위 식사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KBS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직장 인근 또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집행 상대방이나 집행 목적 등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사용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에 사용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B와 이사 9명⁶³⁾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절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61) 위 사람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였음

62)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였으나 일정 기록이 누락된 경우라고 하며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다만, 위 사람이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63) I, D, E, H, F, K, J, L, G(C는 2017. 10. 17. 퇴직하여 제외)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사장 및 이사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사용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에 사용하는데도 이를 금지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도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는 등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적용도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제10기 KBS 이사진(11명) 업무추진비 부담집행 등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합계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및 식품 구입비	22	2,293,990
	개인 사용 목적의 도서 구입비	3(3권)	100,800
	음반 구입비	12	1,431,055
	◁◁◆◆동호회 회식 등 사적모임 식사비	8	1,112,000
	◇◇카페 이용 시 음료비	48	492,250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 ¹⁾	511	3,513,890
	배달 식사비	39	766,510
	사적인 국외여행 중에 사용한 식사비	8	160,915
	KBS 업무 외 KTX 승차권 구입비	1	22,400
	단란주점 이용대금	4	1,860,000
	계	656	11,753,81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공연 및 영화 등 관람권 구입비	25	3,030,396
	자택 인근 식사비	321	25,847,050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 ²⁾ 에 사용한 식사비	98	5,889,800
	직장 인근 식사비 ³⁾	125	20,498,829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2), 3)}	135	9,882,705
	배부처를 알 수 없는 선물 및 기념품 구입비	50	14,934,500
	계	656	74,193,480
기타	자기개발·개인소양 함양을 위한 도서 구입비 ⁴⁾	146(548권 ²⁾)	12,385,050

주: 1. 자택·직장,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단, '자택 인근 식사비', '직장 인근 식사비' 및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는 '자택인근 식사비'항목에 포함,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3.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집행한 금액은 직장·주말·공휴일 사용 금액에는 미포함

4. 본인이 인정한 '개인 사용 목적의 도서' 3권은 자기개발·개인소양함양을 위한 도서 구입 건수 및 결제금액에서 제외하고 금액은 카드 가맹점 자료의 도서별 표시가격 기준임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I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구입비 등	12	2,066,390
	태블릿PC 및 주변기기(ㄱ, ㄴ 케이스, 메모리 카드)	1	626,000
	이어폰, 와이파이 신호 중계기	4	145,020
	차량용 충전기	1	22,000
	메모리카드(2차 구매)	1	13,000
	휴대전화 단말기(ㄷ), USIM카드, 약정위약금	3	862,370
	휴대전화액정 수리	2	398,000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 구입비 ¹⁾	318	2,320,540
	개인사용 목적의 도서 구입비 (청소년용 도서 1권, 컴퓨터/IT 분야 도서 1권, 법학서적 1권)	3	100,800
	계	333	4,487,73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직장 인근 식사비 ²⁾	55	3,575,400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²⁾	12	1,278,200
	배포처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선물용 음료수 구입비	1	14,000
	계	68	4,867,600

주 1. 자택·직장,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단, ‘자택 인근 식사비’, ‘직장 인근 식사비’ 및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직장인근·주말·공휴일 사용 금액에서 제외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D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행사 후 회식 등 △△동호회 회식 비용	6	878,000
	◇◇카페 이용 시 음료비	48	492,250
	사적인 국외여행 중에 사용한 식사비	8	160,915
	음반 구입비(뮤지컬 ‘ㄱㄷ’ OST)	1	34,775
	배달 식사비	39	766,510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 ¹⁾	152	940,850
	계	254	3,273,30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자택 인근 식사비	178	7,364,930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 ²⁾	82	3,576,950
	직장 인근 식사비 ³⁾	4	174,100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³⁾	63	3,262,320
	공연 및 영화 등 관람권 구입비	24	3,016,396
	클래식 공연(국립오페라단의 ‘ㄱㄷ’ 등)	11	1,394,000
	영화	6	120,000
	대중음악 콘서트 등(○공연 등)	3	741,000
	뮤지컬(‘ㄱㄷ’ 등)	2	471,396
	발레(‘ㄱㄷ’ 등)	2	290,000
	계	269	13,817,746

- 주: 1. 자택·직장,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단, ‘자택 인근 식사비’, ‘직장 인근 식사비’ 및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는 ‘자택 인근 식사비’ 항목에 포함,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3.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직장·주말·공휴일 사용 금액에 미포함
- 자료: KBS 및 카드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관련자(D) 주장 및 판단

구분	D의 주장 ^{주)}	검토 결과
① 수행사 참석 후 <동호인회식비>	인기▷▷ 등 <계 동향 및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과 관련한 논의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KBS는 현재 < 관련 정규프로그램이 없는 점, <동호인에게 본인이 KBS 이사임을 밝히지 않은 점, 회식 참석자들이 KBS 방송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장의 신빙성이 낮음
② ◇◇카페 음료비	◇◇카페는 <이 있다는 차이만 제외하고 일반 커피숍과 동일하여 시사잡지 등을 정독하고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 KBS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카페 이용 대금은 KBS의 업무와 관련된 사용임	◇◇카페는 <을 동반하여 쉐, ㅏ 등 동반한 <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정황상 ◇◇카페에서 시사잡지 정독, KBS 관련 대화 진행이 쉽지 않은 점 등이 일반커피숍과 다르고 ◇◇카페 이용은 본질적으로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인이 ㅏ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시사잡지 등 정독이 반드시 KBS 이사 업무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
③ 개인적 식사비 및 음료구입비	식·음료 1인분 또는 주말, 자택·직장 인근 1만 원 미만의 식사나 5천 원 미만 음료비를 결제하여 혼자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식사비'에 대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자 계산을 하거나, 혼자 갔더라도 신문을 읽는 등 KBS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상대방이나 업무관련 내용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혼자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읽는 행위를 업무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사람이 사용한 식사·음료비의 금액(평균 6,216원), 장소(ㅏ 등 자택·직장인근), 종류(햄버거, 김밥 등 패스트푸드류 47회), 시간(주말·공휴일, 58회)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장 수용 곤란
④ 사적 해외여행 중 식·음료비	KBS 업무관련 출장 외 개인적인 해외 체류 중 식사 및 음료 비용을 집행한 데 대해 유럽의 문명지를 탐방하거나, 일본의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있어 방문한 것으로 이는 KBS 이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문화탐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뉴스 소재이며, 자문 대상으로 판단했음	개인적인 해외여행으로 KBS 공무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KBS에 자문을 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라고 하나 여행 후 KBS 이사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 없고, KBS 이사진과 직원들 식사자리에서 여행 다녀온 얘기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자문을 위한 조사활동 중 발생한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사에게 지급하는 조사연구비(월 2,520천 원)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 보기 곤란

구분	D의 주장 ^{주)}	검토 결과
⑤ 배달주문 음식비	자택(경기 ㉠시 ㉡구) 인근인 ㉢ 등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비는 자택에 관련 인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하거나 식당 내부에서 식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자택 인근인 경기도 ㉠시에 있는 배달 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직무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배달 전문음식점의 대기 테이블에서는 장소협소나 번잡함 등으로 실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고, 자택에 KBS 관련 인사를 초대해 식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전 ㉣ 사장만 언급하고 나머지 상대방을 소명하지 못하며, KBS와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 수용 곤란
⑥ 주말·공휴일·자택 인근 식사비	주말 또는 공휴일에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데 대해 일반 직원들과 달리 비상임이사들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자신은 자택 주변에서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KBS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음	주말 또는 공휴일에 자택(㉡구) 인근(차량 이동거리 5km 이내)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를 집행하여 사적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주말 또는 공휴일), 장소(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집행하고도 상대방 등 직무관련성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⑦ 공연, 영화 관람권 및 뮤지컬 CD 구입비	KBS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출장 중 구입한 ‘㉤’ 뮤지컬 관람권 및 음반의 경우 사무국으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CD 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KBS 라디오,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입함 공연, 영화 등을 관람한 데 대해 사무국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어 관람하였고 재단법인 ㉥에 조언을 하였고, 음악 애호가인 지인과 같이 관람하면서 음악평을 나누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있음	사무국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CD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적이 없으며, 뮤지컬 ‘㉤’ 음반 구입과 KBS 이사 직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KBS가 방송사이므로 이사 직무와 관련한 집행이라는 주장은 수용 곤란 또한, 사무국이 공연,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KBS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고 ㉥은 재단법인으로 재단이사 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등 KBS와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공연 등을 관람하고 ㉥에 조언을 하는 것이 KBS 이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곤란 그리고 공연, 영화 등 관람시 혼자 또는 다른 음악팬과 함께 보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대방 미소명

주 : ‘D의 주장’은 본인의 진술내용 요약

[별표 5]

E 업무추진비 부담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식품 구입비	9	219,300
	병잉크	1	6,600
	달력	1	8,200
	빵	7	204,500
	음반 구입비	11	1,396,280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 구입비 ¹⁾	28	163,000
	계	48	1,778,58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²⁾	20	1,212,485
	배포처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자택 방문 등을 위한 선물용 빵 구입비	19	734,700
	계	39	1,947,185

주 1. 자택·직장,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는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에 포함
(단,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식사비는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 미포함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H 업무추진비 부담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동호회·개인 모임 식사비	2	234,000
	계	2	234,00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직장 인근 식사비	53	16,061,729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1), 2)}	2	135,700
	자택 인근 식사비 ¹⁾	1	422,000
	계	56	16,619,429

주 1. 직장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는 ‘직장 인근 식사비’ 항목에 포함,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
는 제외

2.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 미포함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7]

F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개인적인 식사비	1	8,000
	단란주점 등 이용비	2	218,000
	계	3	226,00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직장 인근 식사비	3	38,000
	계	3	38,000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8]

K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	10	50,200
	계	10	50,20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전시회 관람권 구입비	1	14,000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주)}	7	512,800
	계	8	526,800

주 :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미포함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9]

B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마트에서의 물품 구입비	1	8,300
	KBS 업무 외 KTX 승차권 구입비	1	22,400
	계	2	30,70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배포처를 알 수 없는 선물 및 기념품 구입비	30	14,185,800
	자택 인근 식사비	113	11,955,830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¹⁾	15	1,832,850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²⁾	18	2,076,800
	계	161	28,218,430

주: 1.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는 '자택 인근 식사비' 항목에 포함,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미포함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0]

J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	개인적인 식사비	2	31,300
	계	2	31,300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자택 인근 식사비 ^{주)}	15	658,000
	직장 인근 식사비	1	425,600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²⁾	2	100,000
	계	18	1,183,600

주: 자택이 여의도에 있어 여의도에 있는 식당 중 자택에서 1km 이내 사용한 경우만 포함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L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 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직장 인근 식사비	6	166,500
	계	6	166,500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2]

G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건, 원)

구분	사용유형	집행 건수	금액
사적사용 의심 용도 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	직장 인근 식사비 ¹⁾	3	57,500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²⁾	1	14,000
	계	4	71,500

주 1. 직장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는 '직장 인근 식사비' 항목에 포함,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제외

2.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에는 미포함

자료: KBS 및 카드 가맹점 제출자료 재구성